



## 응급실 실려간 환자가 마라톤을? 미국 경제의 미친 폭주

← Article ⌂ 195

마을 금고에서 터진 급한 불

빵집 마을 김은행 아저씨가 급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큰일났어요! 미국 은행들이 갑자기 현금이 없어서 난리가 났다고 해요."

← Article ⌂ 195

"은행이 현금이 없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김은행 아저씨가 상황을 설명했다.

"미국에서 큰 은행들이 하루하루 쓸 돈이 없어서, 중앙은행에 순 벌리고 있대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올해만 벌써 두 번째래요."

카페 사장이 의아해했다.

"은행이 돈이 없다니,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김은행 아저씨가 심각하게 말했다.

"이게 바로 문제예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질문: 은행의 돈이 어디로 갔을까?

빵집 사장 민우가 원인을 궁금해했다.

"은행이 돈을 어디에 써버린 거예요?"

김은행 아저씨가 흐름을 추적했다.

"은행들의 돈이 한곳으로 빨려들어 갔어요."

← Article ⌂ 195

- 미국 정부가 갑자기 단기 채권을 엄청나게 많이 발행
- 짧게 빌리는 돈이면서 이자를 좀 더 많이 줌
- 은행들이 이걸 사느라 현금을 다 써버림
- 결과: 일상적으로 쓸 돈이 바닥남

과일가게 사장이 비유로 이해했다.

"그럼 정부가 '금리 좋은 적금 상품'을 갑자기 너무 많이 내놔서, 은행들이 그 거 사느라 운영자금까지 다 써버린 거예요?"

김은행 아저씨가 확인했다.

"정확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정책 목표는 따로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유동성 압박이 구조적으로 발생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정부는 왜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

물리나 의료기기점 사장이 의도를 물었다.

"정부가 왜 이렇게 위험한 방법을 썼을까요?"

← Article ⌂ 195

"정부에는 나는 속삭이 있었어요."

정부의 실제 목적:

- 단기 이자 비용 절감 (짧게 빌리는 게 더 쌈)
- 장기 채권 금리를 낮추려 했음
- 장기 금리가 낮아지면 → 주식, 부동산 가격 상승
- 경제가 좋아 보이는 효과 만들기
- 단기적으로는 성공했음 (모든 자산 가격 상승)

센텐 악국 사장이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은행들이 돈이 없어진 거네요?"

김은행 아저씨가 부작용을 설명했다.

"맞아요. 정부는 예상 밖의 부작용이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과거에 유지되던 평균 범위:

- 단기 채권 20%: 장기 채권 80% (전통적인 균형)

← Article ⌂ 195

"이렇게 균형을 깨뜨리면 언젠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황을 경제에서는 '유동성 위기'라고 부른다]

세 번째 질문: 중앙은행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카페 사장이 해결책을 궁금해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김은행 아저씨가 응급처치 과정을 설명했다.

"중앙은행이 비상 창구를 열었어요."

비상 대응 과정:

- 9월: 62억 달러 긴급 지원
- 10월~11월: 610억 달러 대규모 지원
- 방법: 은행이 국채를 담보로 맡기면 즉시 현금 대출

빵집 사장 민우가 규모에 놀랐다.

"61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80조원이 넘는 거 아니에요?"

← Article ⌂ 195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평상시에는 거의 쓰지 않는 비상 창구를 한 해에 두 번이나, 그것도 이렇게 큰 규모로 연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시장이 자연스럽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네 번째 질문: 이 돈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과일가게 사장이 결과를 물었다.

"그래서 그 엄청난 돈이 시장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김은행 아저씨가 의외의 결과를 설명했다.

"역설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예상과 다른 결과:

- 원래 목적: 은행들의 현금 부족 해결
- 실제 결과: 은행 시스템에 풀린 자금이 시장을 통해 위험자산으로 흘러감
- 과정: 머니마켓펀드, 자산운용사를 거쳐 주식 시장으로 이동

← Article ⌂ 195

물리나 의료기기점 사장이 아이러니를 지적했다.

"위기를 막으려고 준 돈이 오히려 투기를 부추긴 거네요?"

김은행 아저씨가 모순을 확인했다.

"정확해요.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에게 수혈했는데, 그 환자가 갑자기 달리기 시작한 격이에요."

[이런 현상을 경제에서는 '도덕적 해이'라고 부른다]

다섯 번째 질문: 누가 이익을 봤을까?

센텐 악국 사장이 수혜자를 궁금해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실제로 돈을 벗 건 누구예요?"

김은행 아저씨가 수혜 구조를 설명했다.

"여러 단계로 나뉘어서 이익을 봤어요."

실제 수혜자들:

- 단기 채권 고금리 수혜: 머니마켓펀드, 대형 금융기관
- 유동성 지원 수혜: 자신운용사, 헤지펀드
- 결과적으로: 이미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벌었음

← Article ⌂ 195

카페 사장이 불공평함을 지적했다.

"그럼 문제 해결 비용은 모두가 나누어 부담하는데, 이익은 일부만 가져간 거네요?"

김은행 아저씨가 구조적 문제를 확인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응급처치가 언제까지 가능할지 의문이에요."

중앙은행도 무한정 돈을 풀 수는 없다. 인플레이션 위험도 있고, 무엇보다 이런 식으로 시장을 인위적으로 떠받치는 것 자체가 건전하지 않다.

[방금 본 이런 상황을 경제에서는 '정책 혐정'이라고 부른다]

새로운 관점으로 시장 보기

물리나 의료기기점 사장이 투자 관점을 물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시장을 봐야 할까요?"

← Article ⌂ 195

"이런 국민에서는 '왜 오르는가'보다 '왜 안 떨어지는가'를 먼저 봐야 해요."

시장을 보는 새로운 질문들:

- 이 상승이 자연스러운 성장인가, 인위적 지원 때문인가?
- 지원이 중단되면 어떻게 될까?
- 실제 경제 기초체력과 시장 가격이 얼마나 괴리되어 있을까?

← Article ⌂ 195

센텐 악국 사장이 이해했다.

"그럼 걸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속은 다를 수 있다는 뜻이네요?"

김은행 아저씨가 정리했다.

"정확해요. 환자가 달리고 있다고 건강한 게 아니듯이, 시장이 오르고 있다고 건전한 건 아니에요."

뉴스를 보는 새로운 관점

이제 마을 사람들은 뉴스를 다르게 보게 될 것이다.

개별 정책 뉴스를 아니라 임시방편의 연속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금융 정책 뉴스를 볼 때마다 자동으로 떠오를 질문이 하나 있을 것이다.

"이 정책의 부작용은 누가, 언제, 어떻게 처리하게 될까?"

← Article ⌂ 195

Want to publish your own Article?

Upgrade to Premium

11:05 AM · Dec 30, 2025 · 195 Views

← Article ⌂ 195